

남원 화장품 기술 사업화 '날개'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지원사업 중소벤처부 연속과제 선정 피부과학 기반 제품 경쟁력 강화 매출 증대·일자리 창출 협력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전경.

남원시 출연기관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남원바이오산업(화장품 분야)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연속과제로 선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남원시 산업연구원은 시군구 연구 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3억1100만원을 들여 '남원바이오산업(화장품분야)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모델을 발굴해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가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남원화장품산업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시군구사업의 핵심과제는 피부과학 기반 브랜드 및 제품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구축 등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혁신화&성장촉진(브랜드구축) ▲인식개선(기술설계, 기술실무, 기술심화)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 전시박람회참가, 피부임상, 인증확보 등) ▲패키지지원(국내시장개척, 해외시장개척) 등 1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연구원은 총 51건의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남원시 소재 화장품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13개 기업과의 사업협약 등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 소비자인증조사, 전시박람회 참가, 시험분석, 인증확보, 사업화지식재산권확보, 성장전략컨설팅, 사업화예로해소 등 7개 사업, 24건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도 17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내 바이오기업의 기술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 기술, 장비 지원사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시험분석 및 인증확보,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관내 기업 성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정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군산시의회 "특별재난지역에 군산 포함을"

도로·농지·주택 등 침수 피해

이번달 초 전북지역에 장맛비가 쏟아져 큰 피해를 낸 것과 관련 군산시의회가 정부에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군산시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일(마 선거구)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9~10일 군산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140mm, 하루 209mm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도로·농지·주택·상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군산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산사태 22건, 토사 유출 92건, 주택·상가·도로 침수 238건, 농지 90.67

ha 침수 등과 함께 이재민 108명이 발생하고 소상공인 피해 접수가 343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물가에 소상공인 대다수가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식당이 냉장·냉동고 등의 설비가 침수까지 당해 시름에 잠겼다"면서 "피해가 광범위해 응급 복구는 미비하고 수재민과 상인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군산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과 정부와 전북도에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수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상습 침수지역 정비계획 마련 등을 요구한 이 담겼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군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풍천장어' 국가대표 음식 33선에

관광공사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 외식업·학계 등 전문가들 선정

고창의 특산물 '풍천장어'가 한국관광을 이끌 대한민국 대표음식 33선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Taste your Korea)'를 개발하고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고창의 특산물인 풍천장어가 포함됐다. '테이스트 유어 코리아'는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라는 의미로 한국관광 통합 브랜드 '이미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와 연계해 개발된 브랜드다.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은 외식·관광업계와 학계, 홍보 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음식관광 자문단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음식 콘텐츠를 ▲지역 대표 음식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 ▲지역 대표 전통주 등을 주제로 선정했다.



고창 풍천장어 양념구이.

전북에서는 고창의 풍천장어와 함께 전주의 비빔밥이 뽑혔다. 풍천장어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로 비타민E가 풍부하고 동맥경화와 암, 노화억제,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좋으며 특히 복분자술과 곁들여 먹으면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재난도우미 대상 폭염 대처 교육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2024년 지역맞춤형 중소기업 콘텐츠 유통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풀어줄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

정읍시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뮤지컬 'NEW 달을 품은 슈퍼맨' 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뮤지컬 'NEW 달을 품은 슈퍼맨'은 2017 한국 뮤지컬어워즈 신인 연출상을 받은 추정화 감독의 연출과 2008 뮤지컬어워즈 작곡상을 받은 허수현 음악감독이 만든 작품이다.

희망을 갖고 꿈을 품은 청춘들이 세 모자(母子)가 사는 달동네 자취방에서 상금이 걸린 밴드대회에 참가하며 펼쳐지는 내용을 담은 청춘 힐링 뮤지컬이다.

관람료는 1만원이며 정읍시민·국가공공자·장애인 등은 50% 할인된다. 관람권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해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재난도우미 대상 폭염 대처 교육



정읍시 보건소가 최근 방문보건사업 인력과 재난도우미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온열질환의 이해 및 관리, 온열질환의 증상 및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온열질환 취약 관리 예방관리, 폭염 기간 중 건강수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보건소는 폭염 기간 동안 건강 취약계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역 경로당별로 온열질환의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관리할 방침이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폭염 기간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폭염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벼 해충 방제 7억3000만원 투입

벼 경작지 1만1115ha 잎도열병 등 살균·살충 약제 지원

고창군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벼 병해충 종합방제'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잎도열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기방제를 놓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중국 등지에서 기단을 타고 날아오는 비래해충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종합방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고 벼 병해충 공동공방제지원에 총사업비 7억 3000만원

(자부담 2억 1900만원 등)을 전체 벼 경작지(1만 1115ha)에 살균·살충 종합방제약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단과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와 함께 벼 품질과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을 긴급방제하기 위해 일제출장을 나간다. 방제와 약제살포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드론을 활용해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 농가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